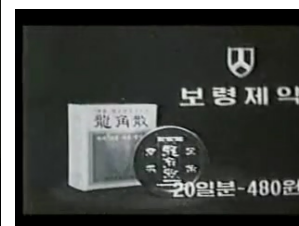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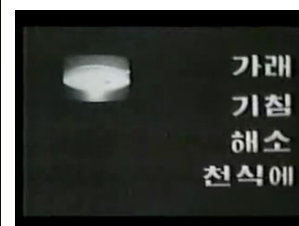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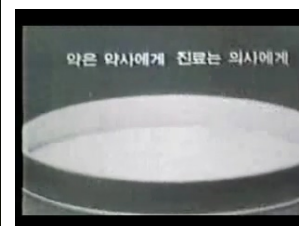


용각산(龍角散)



일본 회사 류카쿠산(龍角散)에서 개발하였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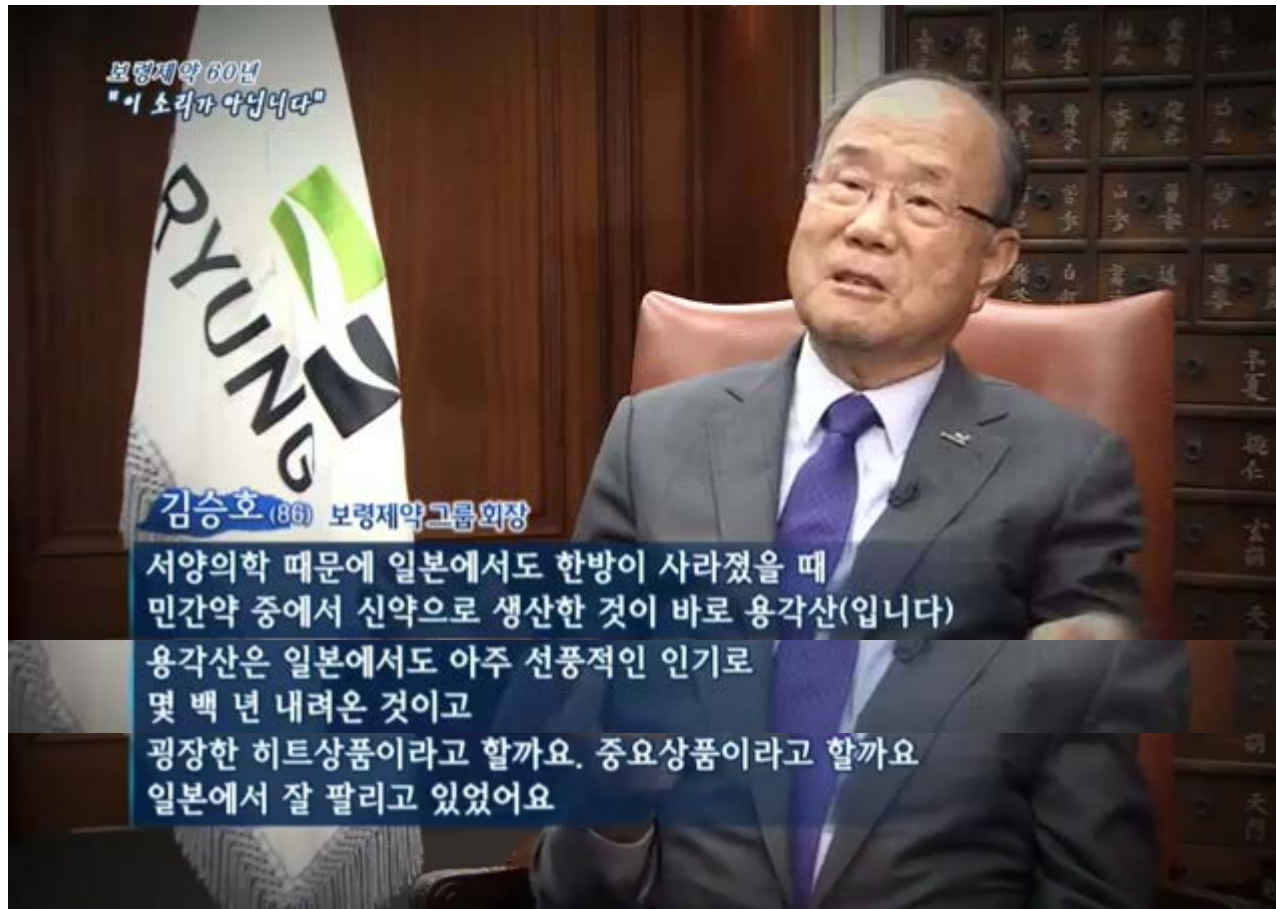
용각산은 240 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.

본래 일본 동북 지방 아키타(秋田) 번(오늘날 아키타 현 일대)의 어전의(御展醫)였던 후지이(藤井) 가문에서 만들던 약이다.

이후 후지이 겐신(藤井玄信)이 기존의 한약인 류가쿠산에 양의학의 생약을 도입하여 개량하였다.

1894년(메이지 27년) 후지이 겐신의 손자인 후지이 도쿠사부로(藤井得三郎)가 가루약 형태로 개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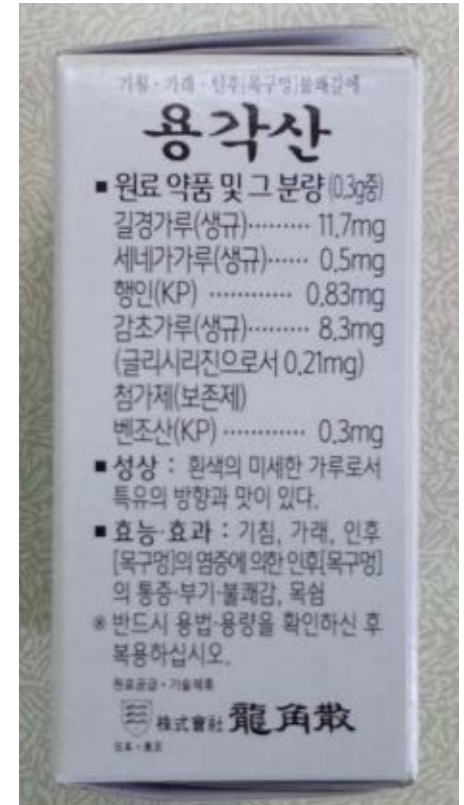
보령제약에서 1967년 생산 판매하였다



용각산이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용골, 용뇌, 녹각상(鹿角霜)이 들어간 분말(산제)이란 뜻으로 지어졌는데, 이 성분들은 후에 처방이 바뀌면서 제외되었다.

현재는 행인, 길경, 감초, 세네가생약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높이고 섬모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가래를 제거시키며 기침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.

1일 3회 ~ 6회 물없이 복용한다.



311 少陰病 二三日 咽痛者 可與 甘草湯 不差 與 桔梗湯

桔梗 1냥, 甘草 2냥.

※ 세네가 : 북아메리카 인디언 중 체로키(Cherokee) 족(族)들이 거담제(祛痰劑)와 이뇨제(利尿劑)로 사용하였던 약재.